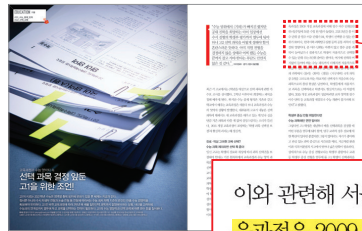


A/S NEWS

입시 초보 독자를 위한



본지 865호
'선택 과목 결정 앞둔 고1을 위한 조언'
기사 중

이와 관련해 서울 미림여고 주석훈 교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필수 이수 단위(단위=일주일에 50분 수업 한 번)가 늘었다. 고교 3년간 총 이수 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가 94,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단위가 86이다. 한국사와 과학탐구실험 등의 공통 과목이 신설된 영향이다. 총 이수 단위는 바뀌지 않고 필수 공통 과

교육과정에서 '단위'란 무엇인가요?

〈미즈내일〉의 기사 중 교육과정을 다루는 기사를 읽다 보면 흔히 '단위'라는 말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영역에도 '단위 수'가 나오니 학교에서는 일상적인 용어일 테지만, 교과 내신 평균 점수를 계산할 때를 제외하면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점수를 넘어서 학생들의 '수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요즘, '단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단위'는 '일주일에 수업이 진행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수업 시간은 보통 50분인데, 1 학기와 2학기 모두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의 단위 수는 4단위가 됩니다. 즉 단위 수가 큰 과목일수록 전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과목이고, 단위 수가 적으면 비중이 작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표)을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는 총 6단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1학기 동안 일주일에 세 번, 2학기 동안 일주일에 세 번 수업하는 방식으로 6단위를 충족하게 됩니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 역시 단위 수를 학기별로 절반으로 나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위인 〈과학탐구실험〉은 학기당 일주일에 한 번, 즉 1단위씩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한 학기에 30단위 정도를 이수하게 되지요.

단위를 '수업'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학생이 학교에 갈 때마다 어떻게 수업을 듣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인 '단위'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단순히 등급 숫자만 보기보다 우리 아이의 성적표, 학생부를 펼쳐놓고 어떤 과목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단위를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탐구	한국사	한국사(6)	6	
	사회	통합사회(8)	10	
체육·예술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		10	
생활·교양	예술		10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94	

〈미즈내일〉의 입시 분석 기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코너를 주목해주세요. 지면의 한계로 좀 더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난해한 정보를 골라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봅니다.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asjung@naeil.com)로 요청해주세요. 친절한 A/S NEWS로 답드리겠습니다. _편집자